

#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7/06~2026/07/12]

2026.07.13

## [로봇] 일본 공작기계 강세

- 국내 부품사들 양산 체제 확대. LG전자부터, 삼현, 본시스템까지
- 일본 공작기계 수요 강세. AI CAPEX 사이클 수혜 업종으로 부상
- 1x 테크놀로지스가 25자유도 신형 핸드 공개. 인체 공학적 설계 기반 양산 모델

## [방산] 방산 업종에 대한 소고

- 현대로템 K-23차 양산 윤곽. 페루 전차 및 장갑차가 현지 도착
- 나토 정상회담 성료. 집단 방어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도 선언문에 서명
- 미국-이란 갈등 재점화. 공격 재개 및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 [조선] 미국 군함 RF

- 삼성중공업에 이어 HD현대중공업도 FDC 파트너링 확보
- 캐나다 잠수함 실주. 독일 TKMS가 우선협상 선정
- 미국 군함 건조 가능성 급부상. 미국에서 전투함과 급유함 RF를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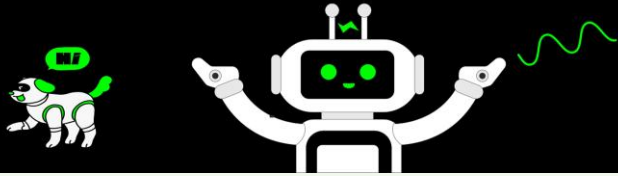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 [항공] 6월 항공 데이터: 무사 통과

- 대한항공, 안화 채권 200억엔 발행 수는 지원 확보. 차세대 항공기 도입 탄력
- 현대차그룹 '기체', 현대엘리 '착륙장', 대한항공 '시스템', UAM 시장 날개 펴나
- 캐리어 대신 HBM 실었다, 여객 성수기에 터진 항공 화물 특수

## [해운] 호르무즈 재봉쇄

-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전면 봉쇄 선언. 트럼프 초토화 위협에 복수 경고
- 파나마 운하 관리청, 엘니뇨 대비 7~8월 단계적 홀수 하향 조정
- 팬오션, 중국 베이하이에 3,600억원 VLCC 2척 추가 발주

#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 Weekly Keyword

### 일본 공작기계 강세

일본의 공작기계 수요가 초강세를 기록 중. AI CAPEX 사이클의 수혜 업종으로 부상. 일본 기업 중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이 높은 기업은 츠가미. 중국 휴머노이드 부품 관련 수요도 다수 확보 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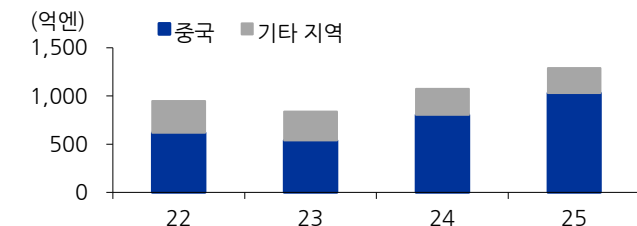


##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3)

### [일본 공작기계 강세]

- 일본 6월 공작기계 수주는 전년 대비 52.8% 증가한 2,035억엔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간 2,000억엔을 돌파. 전월 대비로도 15.0% 증가했고,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해외 수주는 1,455억엔(+56.0% YoY), 내수 수주는 580억엔(+45.5% YoY)으로 모두 견조.
- 반도체, 데이터센터, 자동차, 항공우주항 투자가 수요를 견인했으며, 중국인도 자동차 투자 확대도 긍정적으로 작용. AI CAPEX 사이클의 수혜 업종으로 부상.
- 주가 측면에서는 일본 공작기계 업종 내 '츠가미(6101 JP)'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임(YTD +172%). 츠가미는 정밀연삭 중심의 소형정밀 부품 가공 니치 업체. 동사의 높은 중국 중국 노출도는 강점이자 리스크.
- 최근 중국 내 공작기계 수요 강세에는 로봇 부품 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 휴머노이드 산업이 본격 양산기로 접어들 경우, 부품 가공 측면의 병목과 투자 기회가 공작기계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Key Chart: 츠가미 지역별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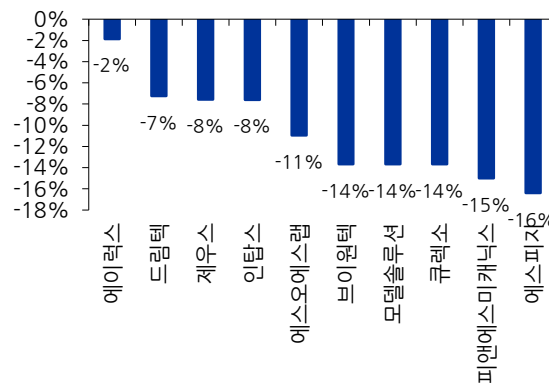


자료: 츠가미, 유진투자증권

##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 로봇 주요 뉴스(07/06~07/12)

### [휴머노이드]

- 레인보우로보, 토요타 로봇 공급 2년 만에 '5배'
- 로보티즈, 첫 휴머노이드 챌린지서 표준 플랫폼 입증

### [부품/SW/기타]

- 박흥근 "휴머노이드 3대 축 중심 재정부자 보강"
- 현대차그룹, AI로봇 전환 위해 공급망 상생협력 강화
- LG전자, 휴머노이드 로봇관절 '악시움' 조기 양산
- LG CNS, LG 휴머노이드 학습 인프라 1,897억원 계약
- 삼현, 5년간 1,000억 투자. 로봇 중심 사업 전환
- 삼현, 휴머노이드용 액추에이터 '엑슬론' 첫 공개
- 삼성전자 제조라인 '4시간 무인 가동' 성공
- LS오토모티브가 휴머노이드 부품 사업에 진출
- 씨메스로보틱스, 하남 데이터센터 키운다
- 빅웨이브로보틱스, 美 진출 6개월 만에 45만달러 수주
- 본시스템즈, 로봇 구동 모듈 양산 위한 공장 부지 인수

### [글로벌]

- 6월 일본 공작기계 수주, 전년비 53% 증가
- 미쓰비시자동차, 월 1천대 규모 휴머노이드 양산
- 1x 차세대 인간형 로봇 핸드 공개
- 테슬라 옵티머스 디자인 확정 기대감
- 테슬라 VP 옵티머스 올해 말까지 대규모 양산 돌입
- 아틀라스, 월드컵에서 세리머니 퍼포먼스와 공 전달
- 내달 베이징서 'WRC 2026' 열린다
- 中 1~5월 로봇 수출 1,037만대. 청소 로봇이 70%
- 中 로보테라, 2개월만에 또다시 2,200억원 투자 유치

## Weekly Keyword

### 방산 업종에 대한 소고

방산 업종은 중동 전쟁 리스크 완화 및 NATO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승세 기록 했으나, 최근 다시 중동 리스크 커지고 NATO 정상 회의 종료되면서 조정. 3Q 이후 수주 기대감에 재차 반등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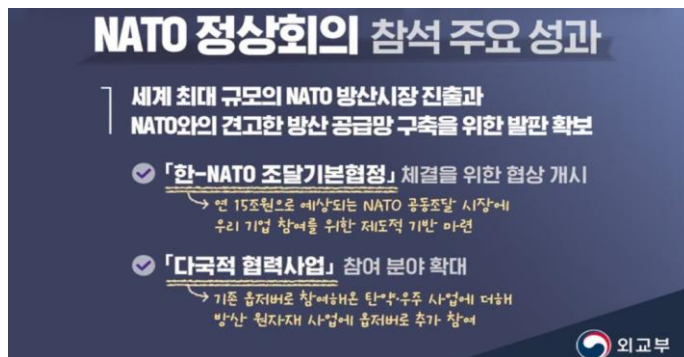


##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81)

### [방산 업종에 대한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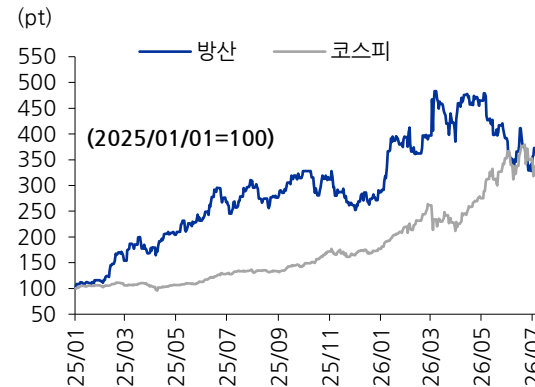
- 방산 업종은 6월 중순 중동 전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신규 수주 재개 기대와 NATO 정상회담을 앞둔 지정학 긴장-방위비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반등했으나, 반대로 최근에는 중동 리스크 재고조(수주 지연), NATO 이벤트 종료에 따라 차익실현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
- 2Q 실적 부진 확인을 거치고, 3Q~4Q 수주 랠리와 함께 다시 추가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7월 말 2Q 실적 시즌이 부담. 주요 방산 기업들의 실적은 OP 컨센서스를 대체로 하회할 가능성.
- 방산 업종의 전체 펀더멘털이 훼손된 상황은 아니며, 최근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일부 완화. 다만 단기 반등을 위해서는 수주 모멘텀 확인이 필요. 3Q 후반~4Q 초반 전시회와 수주 이벤트를 앞두고 중기 관점에서는 다시 봐야 할 구간으로 판단.

## Key Chart: 이재명 대통령 나토 정상회담 참석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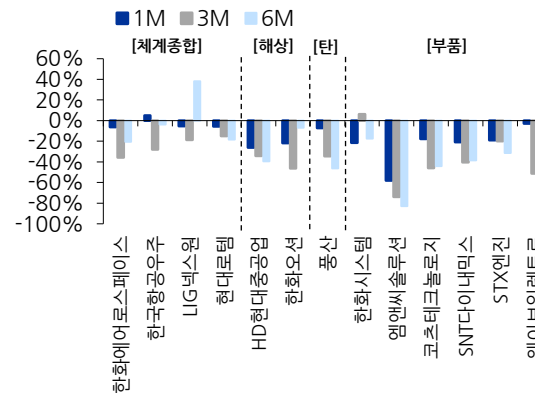


자료: 외교부, 유진투자증권

##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 방산 주요 뉴스(07/06~07/12)

### [수주/계약]

- K2 블랙 팬서 전차가 페루에 도착
- LIG D&A '해성' 말레이 대함미사일 선정 임박

### [기업별 이슈]

- 한화ADD, 국산 장수명 엔진 공개. '엔진 자립' 시동
- 한화에어로, NATO 주요 인사와 밀착 네트워킹
- 한화, 5,000억 추가 투입. KAI 지분 15%로 늘린다
- 현대로템, 폴란드 K2전차 3차계약 윤곽
- 한화시스템, 30톤급 무인수상정 진수

### [기타]

- 李대통령, 'NATO 방산포럼'서 "파트너십 2.0 격상"
- 韓-나토,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
- 방사청 "나토 표준 공유 등 외교적 노력 힘쓸 것"
- 지상군 방산전시회 'K-DEX' 출범, 12월 첫 통합 개최
- K-방산 수출 커지자 '기술료' 올린다

### [글로벌]

- 트럼프 "이란과 종전 MOU 끝난 것 같다"
-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 나토 집단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확인
- 나토 사무총장 "국방비 늘었지만, 무기 신속 증강해야"
- 트럼프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 허가"
- 트럼프, 나토 정상회의 앞 "그린란드 미국이 통제해야"
- 트럼프, 튀르키예 F-35 전투기 판매 가능성
- 독일,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구매 예정
- 독일, ATACMS 미사일 생산 추진



## Weekly Keyword

### 미국 군함 RFI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최근 미국 국방부와 해군이 전투함 및 급유함 RFI를 발행. 여전히 의회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과 군함 건조 협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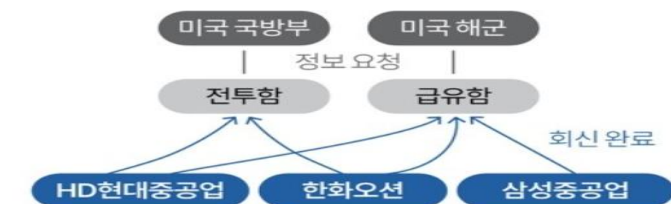


##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1)

### [미국 군함 R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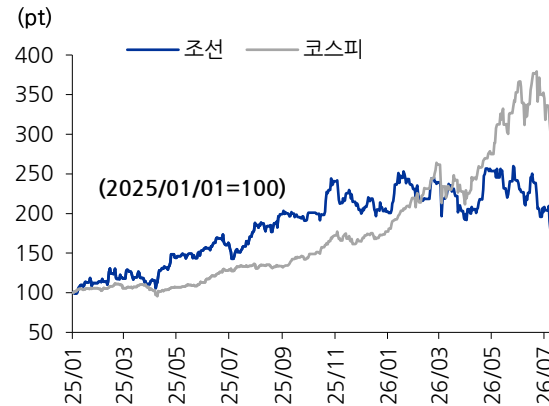
-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조선사에 전투함과 중형급 급유함 관련 RFI를 발송하며 설계-건조 역량을 공식 확인. 전투함 RFI는 미 국방부가 발행했으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회신했고, 급유함 RFI는 미 해군이 발행해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이 회신한 것으로 파악.
- 다만 실제 사업화 여부는 의회 논의가 핵심 변수. 미국에서 국방부와 해군은 수요를 제기하고 RFI를 통해 시장조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합정 조달 예산을 승인하고 해외 건조 허용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주체는 의회이기 때문. 특히 미군 함정의 해외 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예외 적용 또는 제도 변경 없이는 실제 발주로 연결되기 어려움.
- 현재 의회 내 기류는 아직 혼재. NDAA 2027에서 핵심 쟁점은 battle force ship 해외 건조 금지 범위와 보조함 예외 허용 여부.
- 단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사의 미국 전투함 직접 건조보다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JV가 현실적인 협력 모델. 다만 미국 조선 CAPA 부족이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공급망 편입 가능성은 계속 확대될 수 있음.

### Key Chart: 미국 군함 RFI 발행 및 회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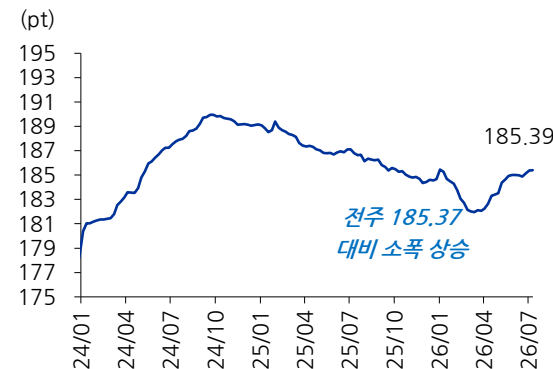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verse, Clarksons

## 조선 주요 뉴스(07/06~07/12)

### [상선/해양]

- 삼성중공업 \$93.0m 수에즈막스 2척 수주
- HD현대중공업 \$51.3m MR PC 6척 수주
- 유니온 마리티타임, HD현대와 VLGC 발주 계약 체결
- 삼성중 'FDC' 상용화. 美 휴스턴 프로젝트 '주목'
- HD한국조선해양-슈나이더 맞은 "FDC 공동 개발"
- 한화엔진 \$77m 선박엔진 수주

### [특수선]

- 미국 정부, 한국 조선사에 전투함급유함 타진
- 靑 "美, 군함 한국 건조도 배제 안 하는 듯"
- 한화오션, 잠수함 수주 불발에 "K방산 도약의 길 찾을 것"
- HD현대중공업, 말레이 다목적함 도입사업 출사표
- HD현대, 우루과이 국방장관 또 회동
-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

### [기타]

- 삼성중공업, 5년 만에 연간 수주 100억 불 돌파
- HD현대, 印 안드라프라데시주 장관 면담
- 한미 조선협력센터, 23일 워싱턴 개소

### [글로벌]

- 캐나다, 獨 TKMS를 잠수함 건조업체로 선정
- 美 싱크탱크 "전쟁, 존슨법 한계 드러내"
- 中 조선, 상반기 글로벌 수주 72% 장악
- 인니 PT PAL이 NAVAL과 스코르펜 잠수함 건조 개시
- 오스탈, 호주 헨더슨 조선소에 용접 로봇 본격 도입

Weekly Keyword

6월 항공 데이터: 무사 통과

6월 국제선 여객 수는 793만명을 기록하며, 비수기에도 양호한 여객 수요가 확인됨. 화물 물동량과 운임은 강세를 지속. 유류할증료 인하 지속되며 7월에도 견조한 여객 수요 이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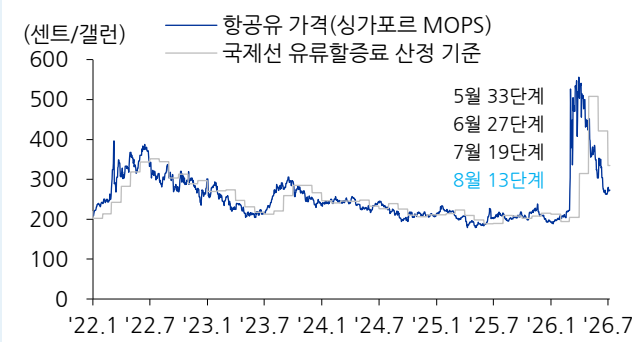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1)

[6월 항공 데이터: 무사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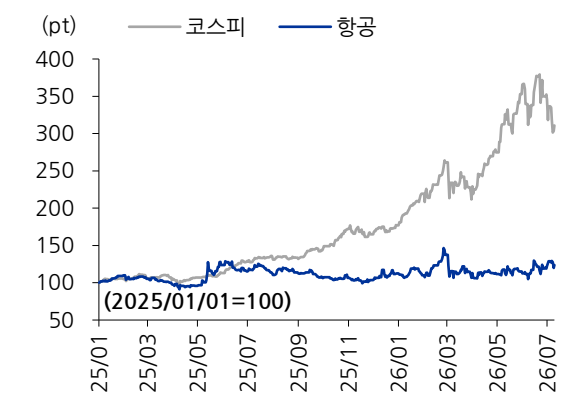
- 6월 전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793만명(-4%mom, +4%mom)으로 양호한 여객 수요 확인. 중국 노선만이 운항편수 증가(+5%yoy)를 상회하는 편당 여객수(+12%yoy)를 기록했으며, 구주 노선은 유로 강세와 폭염으로 수요 둔화. 인천공항 환승 수요는 강세 지속(+32%yoy).
- BAI 화물 운임은 노선별로 상이. 홍콩-북미 노선은 7.71달러/kg로 3월 이후 강세 지속, 홍콩-유럽 노선은 5.45달러/kg로 상승폭 둔화. 중동 지역 항공사들의 운항 회복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
-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 19단계로 하락한 데 이어 8월 13단계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 7월 항공업계의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공권 총액 부담 완화가 맞물리며 주요 간선 노선 중심의 수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

Key Chart: 항공유 가격 & 국제선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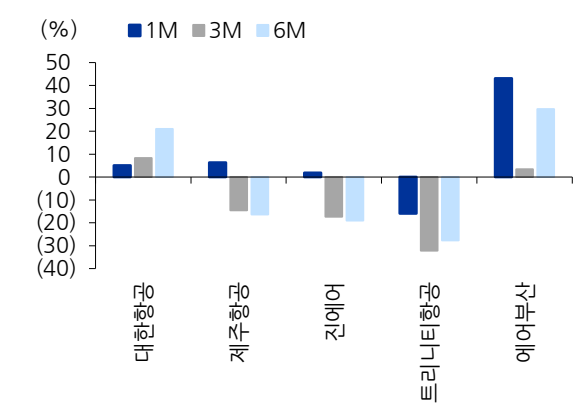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7/06~07/12)

[여객/화물]

- 다시 감도는 중동 전운, 항공 유류비 완화 기대감 꺾이나
- '저가' 버리는 LCC, 사업 모델 다변화로 생존 전략 재편
- 캐리어 대신 HBM, 여객 성수기에 터진 항공화물 특수
- 항공업계 화물 운송 늘린다, 수익성 확보 총력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연화채권 200억엔 확보, 보잉 103대 도입 탄력
- 대한항공, 네덜란드서 항공편 지연 보상 소송 승소
- 대한항공 임직원에게 특별공로금 200만원, 통합 노고 치하
- 티웨이항공 상반기 화물 1만 8,000톤 운송, +37%yoy
- 제주항공 동계 항공권 '짬' 특가, 국내선 편도 2만원대부터
- 진에어 하반기 '진마켓' 티저 오픈, 최대 96% 특가
- 에어로케이 항공화물 운송 개시, 인천~오사카 첫 벨리카고
- 에어프레미아, 사우스웨스트항공과 국내 항공사 첫 연계
- 한국항공서비스-ATS, 항공정비 및 지상조업 MOU 체결

[기타]

- 정부 미래항공기 개발에 5,958억원 투입, 국산 공급망 구축
- 현대차그룹 '기체', 대한항공 '시스템', UAM 시장 날개 펴나
- 인천공항 25년만에 10억명 돌파, 183개 도시 연결 '세계 빅3'

[글로벌]

- 中 상반기 국제 화물항공 노선 92개 신설, 아시아에 집중
- 美 수입 항공기-엔진-부품 232조 조사 완료, 관세 대신 협상
- 베트남 지연-결항 보상 기준 마련, 국제선 최고 165달러



Weekly Keyword

호르무즈 재봉쇄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며 연내 정상화 기대 하락. 대체 원유 장거리 수송 확대와 유효선복 감소로 탱커 강세 지속 기대. 봉쇄 장기화 시 홍해 복귀 지연되며 컨테이너 운임 하방은 지지될 전망.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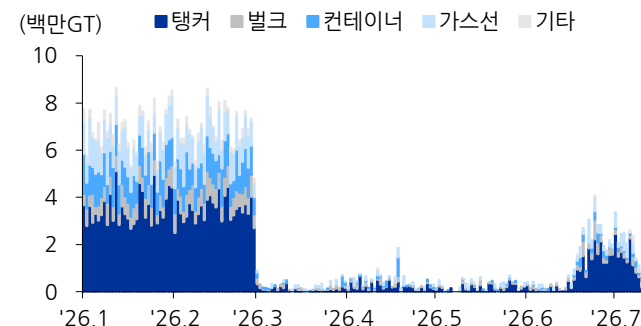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4)

[호르무즈 재봉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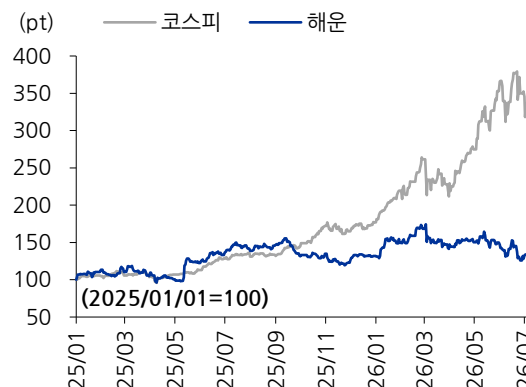
- 7/12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발표. 종전 합의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량은 전쟁 이전(약 120척/일)의 절반 수준 이하에 머물렀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재봉쇄 이후 일평균 통행량이 다시 20척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이번 재봉쇄로 인해 연내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는 다시 낮아진 상황. 이는 탱커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호재로 판단. 중동 원유 수출 차질과 선박 대기로 유효선복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체 원유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VLCC 톤마일과 운임이 지지될 것이기 때문.
- 컨테이너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7/10 주간 기준 SCFI는 3,185pt로 11주만에 처음으로 하락. 성수기 효과와 전쟁 리스크의 선반영 효과가 종료되며, 조정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다만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홍해 항로 복귀 시점이 지연됨에 따라 운임 하방은 지지될 것.

Key Chart: 선종별 호르무즈 해협 통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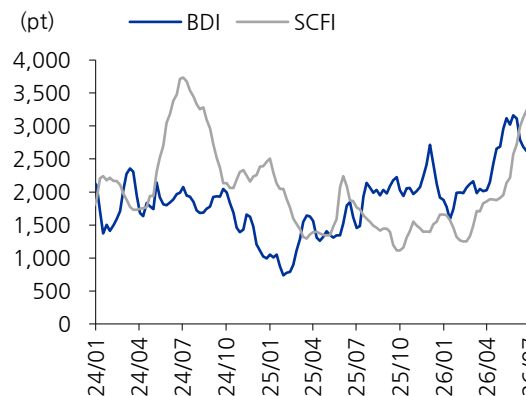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7/06~07/12)

[벌크선]

- 中 석탄 수입 증가, 6월 글로벌 석탄 선적량 +14%yoy 급증
- HMM, 브라질 Vale와 벌크 장기(25년) 전용선 계약 추진 중

[탱커/가스선]

- 2025년말 글로벌 LNG선단 804척으로 +8.4%yoy 증가
- 주요 항로의 식물성 기름 운송 운임 26.04 최고치 기록
-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림자 선대 12척에 드론 공격 단행
- 팬오션, 中 베이하이에 3,600억원 VLCC 2척 추가 발주
- 흥아해운 본사 부산 이전 발표, 국내 해운사 중 네 번째
- Uni-Tankers, Sofar Ocean 웨이파인더 플랫폼 도입 계약

[컨테이너선]

- 파나마 운하관리청, 엘니뇨 대비 7~8월 흘수 하향 조정
- Maersk, Gemini 협력 일부 노선 수에즈 운하 운항 재개
- A.P.Moller, Ocean Yield 지분 100% 인수계약 체결
- HMM 유럽~서아프리카 신규 출항, 허브앤스포크 본격 가동
- Seaspan-Maersk, 컨테이너선 18척 효율성 개선 파트너십

[기타]

- 이란 IRGC, 호르무즈 해협 추가 공지까지 전면 봉쇄 발표
- 中 자동차 수출물량 급증, 자동차 운반 선박 공급부족 직면
- 美 FMC, 중국 항만 파나마 선박 억류 증가에 대해 경고
- 인도 정부, 해외 운항 외국 선박 용선 인허가 요건 완화
- 유럽 항만국통제(PSC) 강화, 억류 선박 688척으로 증가
- ESCA, ETS 수익금 90억유로 해운 탈탄소화에 재투자 촉구
- 1H26 대체연료선박 신조 발주 137척으로 -11.6%yoy 감소